



이달의 안전제언

운명을 결정하는 불안정한 요소들

“성격은 곧 운명이다.”라는 말은 저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자신의 성격에 따라 결정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성격을 인내와 지혜 그리고 덕망으로 스스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운명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격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행동 전에 생각하고,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성격이 있다면 그 성격을 조정하는 습관이 몸에 베이도록 스스로 찾아서 좋은 운명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애초부터 불안정한 존재이므로 착각이나 오해 그리고 성급함이나 고집 등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대로 그것을 성격 탓이라 하지 않고 팔자소관이나 남의 탓이라고 원망을 하게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적반하장이라고도 합니다. 안전은 나의 잘못을 먼저 깨닫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를 너그럽이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 속에서 파우스트가 독잔을 들고 마시려는 순간 교회의 종소리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성실히 살아볼 것을 결심합니다. 이때 악마의 화신 메피스트가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갖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하게되는데, 이 말을 들은 파우스트는 귀가 솔깃하여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메피스트는 조건을 내세워 죽을 때 네 영혼은 내가 갖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죽은 다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승낙합니다. 즉, 쾌락과 영혼을 맞바꾸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파우스트는 메피스트가 안내해 주는대로 온갖 재미를 다 보게 되는데 어느날 아름다운 여인 그레텐을 파우스트에게 소개시켜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사랑은 오직 아름다움과 육체적 쾌락에 눈이 어두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큰 약점입니다. 그레텐을 내세워 유혹하여 마음과 몸을 삼키듯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다가도 귀찮거나 어려워지면 멋대로 아무렇게나 하게되며 퇴근시간이 가까워지면 잘하는 것보다 빨리 끝내기 위해 서두르게 되는 것이며 내일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먼저 마음을 쓰게되므로 뜻하지 않은 불행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사 그 당시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시한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맡은 직무에 순간 순간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까. 